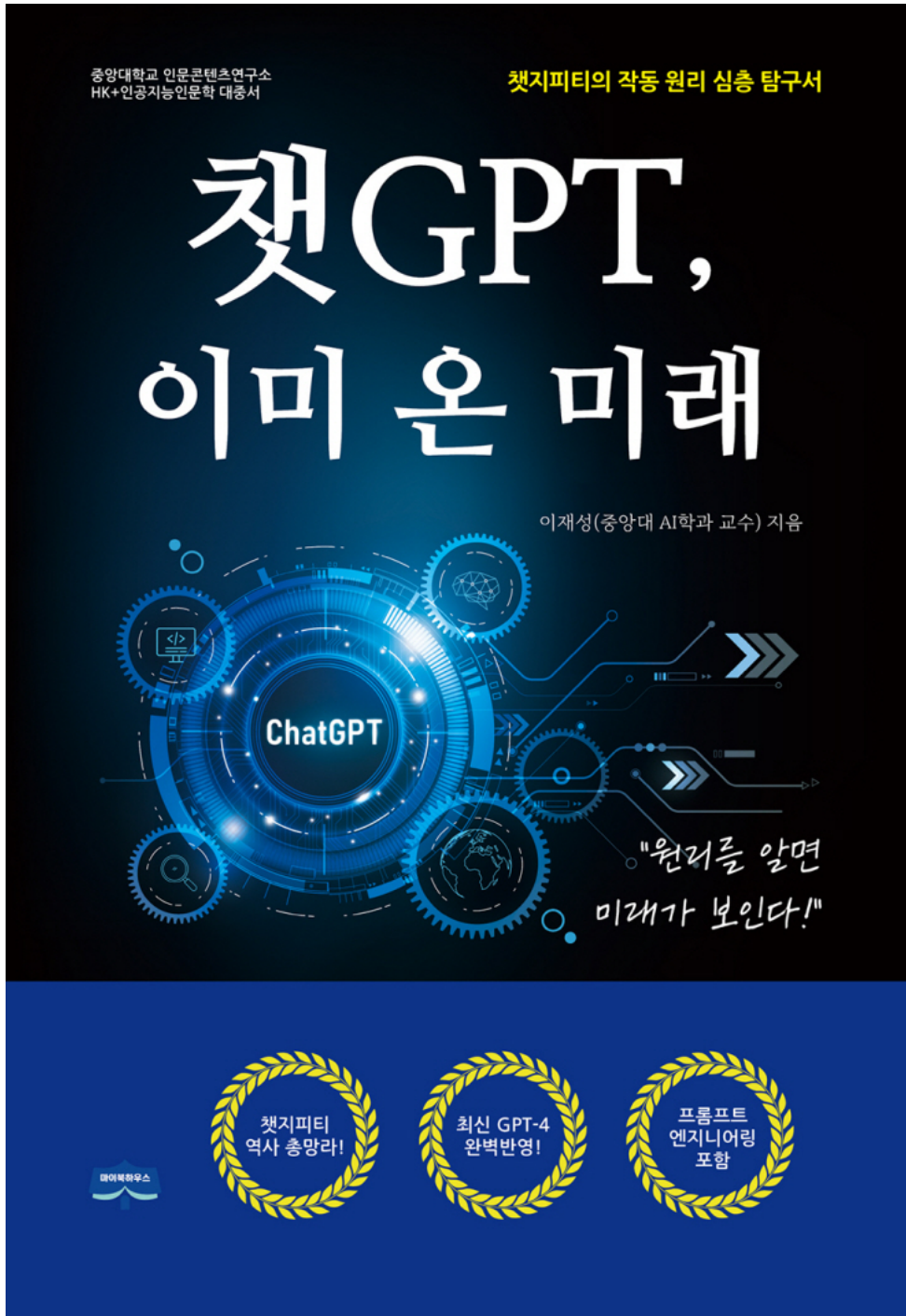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챗GPT, 이미 온 미래> 발간

인공지능인문학 저서 시리즈, 비전공자 눈높이 맞춘 챗GPT 작동원리 심층 분석

송기우 kwsong@ekn.kr

최종 기사입력 2023-08-17 18:41:51



▲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는 <챗GPT, 이미 온 미래>를 발간했다. (자료=중앙대)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국내 유일 인공지능인문학 연구기관인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인문콘텐츠연구소가 인공지능인문학 저서 시리즈의 일환으로 <챗GPT, 이미 온 미래>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챗GPT, 이미 온 미래>는 단순 활용방법과 이슈 집중을 넘어 챗GPT의 작동 원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비전공자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는 책이다.

대형언어모델인 챗GPT는 출시 이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관련 저술 활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기존 챗GPT 관련 서적들은 챗GPT의 활용방법을 소개하거나 기술적 이슈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저자인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 겸 AI공동연구소장(사진)은 최신 인공지능 발전 동향과 기술적 이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머신러닝 분야 전문가다. 인문콘텐츠연구소 인공지능인문학단과 함께 기획·출판한 <챗GPT, 이미 온 미래>를 통해 독자들은 챗GPT의 작동 원리를 심층 탐구하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교수와 함께 책을 발간한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인공지능인문학 연구기관이다. 2017년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HK+(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인문학과 공학을 아우르는 다학제 간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인문학 분야를 선도하는 중이다.

이찬규 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인문콘텐츠연구소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문학적·공학적 함의들을 다뤄왔다. 앞으로도 인문콘텐츠연구소는 이번 저서 발간과 같이 후속세대를 위해 학술적 성과를 잘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우 (kwsong@ekn.kr)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 >

프린트

취소